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3호

발행일 : 2021.07.1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며
또 어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조차도 깨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가야 할 길을 알려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
청
자
집
사
님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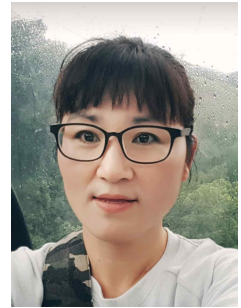
인청자 집사

몇 년에 걸쳐 날 힘겹게 했던 일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누군가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써서 라이프 편집팀에 넘겨야지~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 생각도 무뎌져 가던 어느 날 전수현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간증! 간증! 하고요*^^*.

그리고도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 이런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전수현 집사님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강권하심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너무 부족한 글 솜씨라 주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은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저의 기우에 지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바야흐로 2년6개월 전쯤으로 거슬러 저희 집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배관공사와 화장실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베란다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려가 확인해보니 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는데 베란다 바깥 창문 쪽에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 같이 젖어 있었고, 안쪽에는 약간 푸르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잘못되었다며 화분이 많아 물을 써서 새는 것이라며 아주머니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 살펴보고 원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정확하게 원인을 말해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비 오는 날 더 주시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2층 아주머니께서 우리 때문에 자기 집이 피해를 보는데 아무런 조치도 해 주지 않는다며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처음 듣는 욕들을 제게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2층 아주머니 얼굴도 보기 싫었고 제대로 된 원인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머니 말만 듣고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많은 고민 끝에 더이상 이웃집에 살면서 미워하기도 싫고 마음도 편치않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에 베란다 누수공사와 창문 실리콘 공사까지 거금(?)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아래층 실리콘도 더붙어 좀 봐 달라고 해서 돈을 더 들여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곳도 해 주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는 것 때문이라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걸려 공사가 끝난 후 베란다에 장판을 깔아 물을 되도록 덜 쓰면서 아래층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더이상 아래층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겠지~ 라면 안도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를 보고 내키지는 않았지만(마음의 양금이 남아있어-제가 좀 썸생이입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또 한번 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베란다에 또 물이 샌다고.....주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아주머니에게서 어떤 악담이 또 나올지 겁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본다고 했더니 와서 보기만 하면 월하느냐며 달갑지 않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내려가 상태를 보기로 하고 기도 하는 중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해도 주셔서 남편도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다고 한다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작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머니 생각에 다른 의견을 말하면 목소리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바뀌시는 분인데 내가 집이 몇 채나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겠냐며 저의 말을 무시하곤 하셨습니다. 업자를 불러와서 이야기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어쭙잖은 사람을 불러 왔다고 뭐하고 하셨지요. 저희집 공사가 잘못되었다며 베란다 수도 공사한 곳에서 누수가 되는 거라고..... 뭐든 그 아주머니가 전문가고 아주머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언성 높이지 않고 잘 이야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완악한 아주머니의 마음이 바뀌기를~ 업자들이 올 때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기만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아주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니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하는 반항(?)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시는데 어찌겠어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환경을 바꾸시더니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라의 1층 현관 계단 아래에 물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었는데 의견을 모아 그 원인을 찾고자 가가호호 누수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층 빌라의 모든 분들이 걱정했던 누수의 원인이 1층 한 가정의 보일러 온수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누수 검사하는 분에게 부탁해서 아래층 베란다의 원인을 찾고자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려 살펴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저희집 수도는 이날 검사로 누수되고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희집에 오셔서 보시더니 베란다에 장판을 깔 것이며 화분마다 받침대 한 것을 보시더니 베란다에 물 안쓰는 걸 이제는 알았다고 하시네요. (여러번 물을 안쓰다고 말씀드렸었는데..ππ.)

하나님께서서는 베란다 물샘의 원인들이 저희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수 검사하시는 분이 작업하는 모습이 아주머니의 마음에 드셨는지 확실하신 것 같다고 신뢰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전화해서 검사비용(5만원-빌라 회비로 하기로 했는데)으로 언성을 높였던 아주머니였는데, 이번에도 시원찮은 업자를 부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쪽 분야에 알아주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더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쭙잖은(?) 업자가 아니라서 아주머니 마음에 들어 감사하고, 현관 계단 아래 물 샘의 원인이 밝혀져 감사하고, 특히 우리집 때문에 아래층 베란다에 물 새는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수 검사하시는 분이 혹시 모른다며 베란다 통창의 창틀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오래되어 비가 오면 물이 샅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실리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에어컨 실외기 구멍(실리콘 공사하면서 했었는데 또 말씀하셔서)에도 실리콘을 더 많이 발랐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또 베란다 천장의 물샘의 원인이 우리집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공사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드렸더니 아주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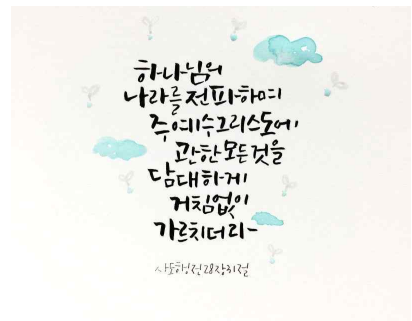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서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며 아래층 아주머니의 마음을 선하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오랜시간 괴로워하던 집안의 문젯거

리를 해결 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펴고 잘 수 없어 웅크리고 자야만 했던 어떤 죄인의 모습처럼 죄도 없이 편한 잠을 잘 수 없었던 전쟁 같았던 날들이 가고 이제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며 또 어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가야 할 길을 알려시기 위한 방법인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 족기까지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또 베란다 천장의 물샘의 원인이 우리집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공사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드렸더니 아주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서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며 아래층 아주머니의 마음을 선하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오랜시간 괴로워하던 집안의 문젯거리를 해결 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펴고 잘 수 없어 웅크리고 자야만 했던 어떤 죄인의 모습처럼 죄도 없이 편한 잠을 잘 수 없었던 전쟁 같았던 날들이 가고 이제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며 또 어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가야 할 길을 알려시기 위한 방법인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 족기까지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알청년회 한예원 청년입니다 ~

2.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올해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라 학교 공부와 ‘공인노무사 자격증시험’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 늘 날씬한 몸매와 예쁜 얼굴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쁜 얼굴은 아닌 거 같은데 ㅎㅎ 날씬한 건 다 부모님 덕분이죠. 살이 잘 안찌는 체질인 거 같아요. 근데 건강하기보단 날씬하기만 한 거 같아서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요 :)

4.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요. 제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5. 부모님께 나는 어떤 딸 인가요?

걱정시키는 딸인 거 같아요. 조심성이 부족해서 잘 넘어지고 여기저기 부딪혀 멍도 많이 들거든요 ^^.. 게다가 제가 저혈압이라 몇 번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린 적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살아서 ‘밥은 잘 챙겨먹나’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6. 한예원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장래에 더욱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행복해지시길 소망합니다

7. 살면서 후회스러웠던 나는 언제였나요?

살면서 크게 후회한 적은 없지만 굳이 꼽자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만 지원했던 때요 ㅎㅎ 이게 그나마 후회스러웠던 저의 모습이었던 거 같아요.

8. 말씀은 (위로)이다.

왜냐하면 (힘들 때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9.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두 개씩 부탁해요.

장점으로는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맡은 일과 계획한 일은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음.. 이 부분은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 같아요 ㅎㅎ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다른 한 가지 단점은 제가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말을 사납고 솔직하게 하는 점이에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를 빌려서 이해해 주는 청년들 감사합니다 ..♥

10. 나는 결코 이런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 두 가지 정도 말씀해주세요.

제가 되고 싶지 않은 어른의 모습은 무조건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어른과 남에게 피해주는 어른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들어주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른은 절대 되고 싶지 않아요.

11.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 사역을 해왔어요. 그 일을 통해 느꼈던 성도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반주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재능이 없는 저에게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

12.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가장 안쓰러웠을 땐 언제가요?

본인과 가정보다 성도님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위해줄 때, 설교 준비로 늦은 시간에 주무실 때를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 일찍 자는 편이 아닌데도 토요일엔 설교 준비로 아빠가 먼저 주무시는 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존경스럽습니다.

13. 남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ㅎㅎ

14. 코로나로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마음껏 교제도 나눌 수 없네요. 성도님들께 비타민 같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도 벅차시죠? ㅜㅜ 교회 내 활동에도 아직 제한이 있고 모두 힘들고 지치는 시기이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이겨내 보아요!

15. 자신의 30년 후 모습을 스케치해주세요.

음 30년 후이면 제가 53세인데 아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겠죠?! 아마 자녀는 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ㅎㅎ 저는 일과 가정 양쪽 모두에 충실한 워킹맘, 그리고 교회에선 믿음으로 충성하는 한예원 권사님이 되어있길 기대해봅니다 :)

16. 동생 예성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했어요. 예성이에게 힘이 될수 있는 누나로서의 격려사 부탁드립니다.

예성아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텐데 조금만 더 힘내고 몸 조심히 훈련받아. 지금도 편지 자주 쓰긴 하지만, 앞으로 편지랑 사진 더 자주 보내 준다는 말이 너한테 가장 힘이 될거 같다^^ 나머지 애긴 편지에 쓸게~^^

17. 나만의 영성 유지의 기준, 비밀, 비결 말씀해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 다짐한 것 중 하나가 매일 아침에 성경 읽기와 자기 전 기도하기인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지키는 것이 은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침에 바쁜 날에는 늦은 밤, 또는 새벽에라도 꼭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18. 6월 달 표어 말씀은 ‘너의 흔적을 남기라’입니다. 성도님은 주님

나라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흔적을 남기실 건가요?

어릴 적부터 반주와 교사, 그리고 올해 밀알청년회 회계로서도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관에 성도님들이 드시는 다과를 준비하는 데에도 작게 보태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흔적들을 남길 것이고, 더 불어 어떻게 주님 나라에 더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려고요 ㅎㅎ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사모함으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 안아 주심에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저버리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써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진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당진 지역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행복하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성도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서로가 힘이 되어 줄 수 있게 하시며
섬김을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선한 일에 앞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
신앙을 지키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하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칙을 잘 지켜나가며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아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며
때로는 성도 때문에 한숨지으시고 괴로워 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오며
목사님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모든 당진순복음 성도들이 합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권찰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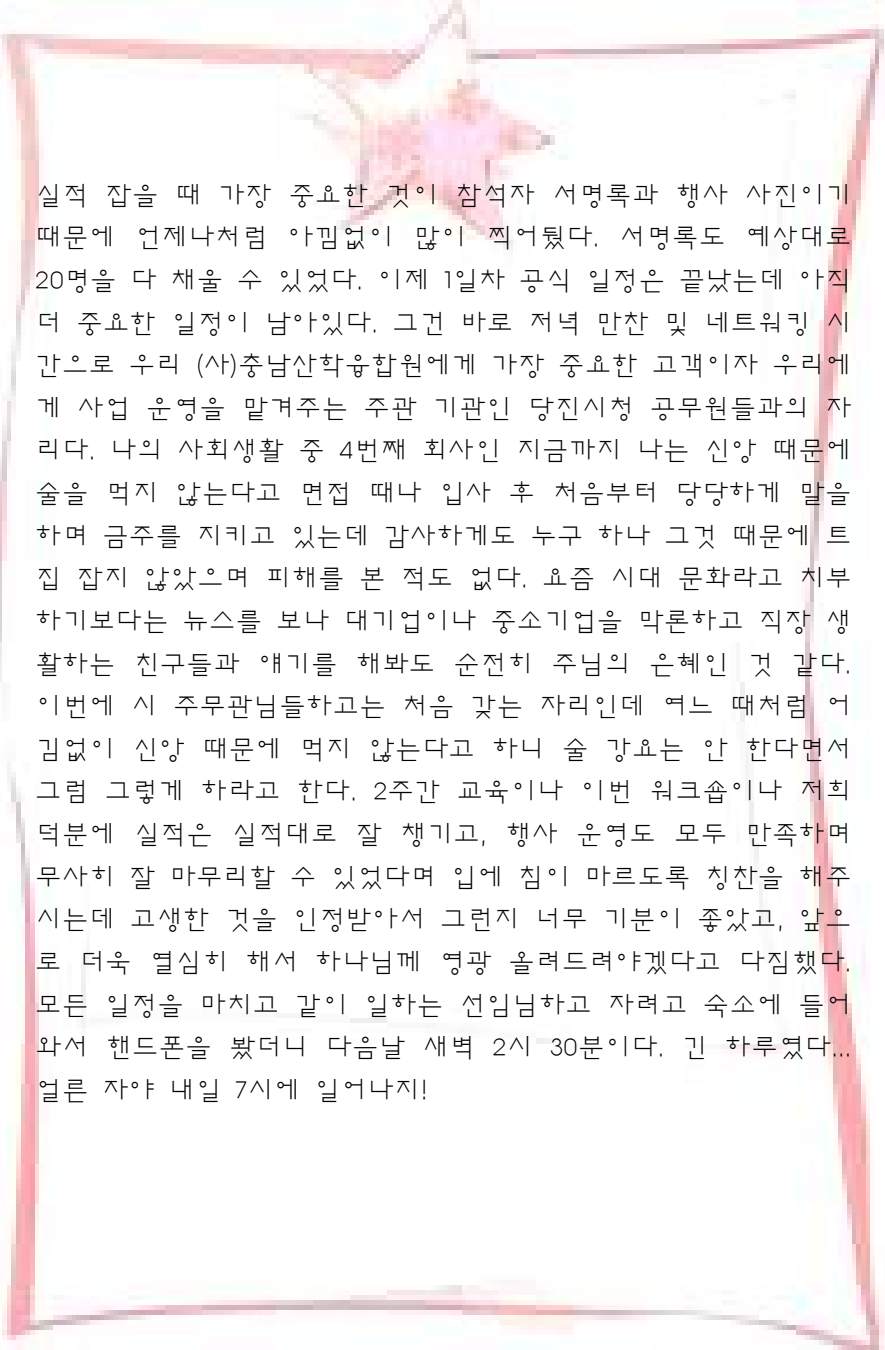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민이삭 권찰

이직하고 처음이자, 심지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 이외에 일로 외박하는 것은 최초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몇 번의 워크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댁분들께서 신혼이자 애기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해해주신 덕분에 당일 밤에라도 집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외박할 일이 없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당진시 중앙년기술창업센터에서의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워크숍이자 한해 농사의 가장 큰 행사에 포함되는 2주간의 교육의 후속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 끝까지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육을 같이 협업하고 예산을 지원해준 당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무원들이 동행한다고 하여 중간에 혼자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워크숍 장소는 태안 아일랜드리솜으로 안면도 꽃지에 위치해 있으며, 작년에 리뉴얼해서 깔끔하고 좋다고 한다. 가는 데까지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하루 일정 시작이 안면도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교육장 세팅 및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하는 소현이와 아이들과 인사하고 다른 때 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나 혼자 이렇게 외박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혼자 고생하고 있을 소현이를 생각하니 더욱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10시 5분쯤 도착해서 준비를 다 마치고 시 주무관님들과 같이 교육생들을 맞았다. 오전에 강사님 모시고 특강 한 타임 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똑같이 특강 한 타임하고 멘토링까지 잘 운영하고 저녁을 먹었다. 감사하게 워크숍 준비하면서 안내할 때 오신다고 확답 주셨던 분들께서 다 참석해 주셔서 실적은 충분히 나올듯 싶다.



실적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참석자 서명록과 행사 사진이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아낌없이 많이 찍어줬다. 서명록도 예상대로 20명을 다 채울 수 있었다. 이제 1일차 공식 일정은 끝났는데 아직도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다. 그건 바로 저녁 만찬 및 네트워킹 시간으로 우리 (사)충남산학융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우리에게 사업 운영을 맡겨주는 주관 기관인 당진시청 공무원들과의 자리다. 나의 사회생활 중 4번째 회사인 지금까지 나는 신앙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면접 때나 입사 후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하며 금주를 지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트집 잡지 않았으며 피해를 본 적도 없다. 요즘 시대 문화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뉴스를 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순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 같다. 이번에 시 주무관님들하고는 처음 갖는 자리인데 여느 때처럼 어김없이 신앙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하니 술 강요는 안 한다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한다. 2주간 교육이나 이번 워크숍이나 저희 덕분에 실적은 실적대로 잘 챙기고, 행사 운영도 모두 만족하며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는데 고생한 것을 인정받아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선임님하고 자려고 숙소로 들어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다음날 새벽 2시 30분이다. 긴 하루였다... 얼른 자야 내일 7시에 일어나지!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박봉녀 권할

- *기관 청소로 인하여 성전 뉘기꼴 할 수 있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 *다육이 예쁘게 길 가라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 *남편이 친절하게 복신에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 *오후 내내 두통이 있었는데 빔복터 좋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윌희가 공부방에서 열심히 한다는 칭찬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윌희가 김치에 갈비탕만으로 밥 길 먹어서 감사합니다.
- *윌희가 온라인 수업을 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 *안겉하게 출근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 *교회에 올라 반가운 구옥순,김명희 집사님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 *꽃꽂이로 헌신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 *주일 오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나씨가 더웠지만 아무칸 없이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성도님들께 다육이 선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성옥 성도

- *오늘 하루 휴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안건한 온건으로 충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 *좋은 날씨로 부모님 모시고 잠깐 데이트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 *사무직 불러 갔지만 사고친게 내 것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 *피곤했지만 작업 잘 마치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 *성경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맛있는 식사로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 *님편이 예배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 *영광이에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 *요리 잘 못하지만 잘 먹어주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아들 스스로 아침에 잘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 *엄마 핸드폰 고장났지만 언니가 새 폰으로 바꿔줘서 감사합니다.
- *미니 컴퓨터 책상 엄마께 사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음료수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 *오늘 점심밥 별로였는데 맛있는 짜장면 사 주신 사랑 있어서 감사합니다.
- *공강 없지만 건강하게 하루 일과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여름맞이 교회 화단
제출 작업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손길이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성재 청년)



리브가 여선교회
헌신예배



이모
저모



교회
등산대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 보입니다
(이윤경 집사)



사라 여선교회
헌신예배

아기도 날마다 바빠요 ~~~
정민 아빠 님은 민서예요 ~
(김순미 권사)



건강하게 잘 자라준
손녀딸 채원아
많이 많이 사랑해 ~~~
(박순남 권사)



아빠 산책갔을 때~
그리고 오리선발 신고
처음 걸음마 할 때
적은 사진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
(유혜진권사)



6월 9일이 생일입니다.
소울이가 탄생하니까
미소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 처음 이가
하얗게 반짝일 때
그때가 많이 생각났어요
(강연순 권사)



주일학교 소식

할렐루야~!!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달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다니엘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번 한 달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하며 지냈는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첫째 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레크레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서로 돕고 응원하며 즐겁게 게임을 진행 후 맛있는 간식 뽐기까지 아주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주, 기도 손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손 모양을 그리고 오려서 손바닥 사이에 소원하는 것 3가지, 회개 기도할 것 3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셋째 주, 세상을 향한 마지막 징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라 조금 지루해하고 힘들어 했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 ‘너의 인생을 즐겨라~’ 평소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쉽게 해보지 못해 보았던 액티비티를 소개해주었는데요. 페러글라이딩, 서핑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교회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와 가격 등을 자세히 작성해서 알려주니 다음에 어디 가봐야지~ 해봐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정겹게 나누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교회에 오르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움직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투렌 그림 찾기 투린곳은 5곳



* 변화 - essay.180 -



* 투심을 영접했다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명의 투심을 영접하고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기한 일이다!!

성경퍼즐

					¹ 사	
				² 질		
			³ 화			
		⁴ 자				
	⁵ 미					
⁶ 요						
⁷ 단	⁸					
	리					

가로

1.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2.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00를 지켜야 복잡하지 않겠지?

3. 어른들이 하는 도박의 하나. 하나님은 이런 00놀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4. 옆집 철수는 노을도 100점을 맞았다고 00을 하고 다니는 구나. 저렇게 자기 00을 하고 다니면 보기가 좋지 않지?
5. 사울 왕의 딸의 이름은?
6. 마술사는 마술을 부리고 요술쟁이는 00을 부린단다.
7.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을 00 손님이라고 부르지? 우리도 교회에 자주 가서 기도하는 00이 되자!

세로

1.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주고 빌려주는 사람.
2.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고 00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단다.
3. 그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 신라 시대 청소년 수양 단체를 부르는 이름이 기도해.
4. 시냇가에 잇는 작은 돌맹이.
5. 수업시간 중에 그림을 그리는 00시간이 있지? 성경을 읽고 상상하면서 성경 속의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창의력에도 도움이 될 거야.
6. 사울의 락들의 이름은?
8. 다윗이 무찌른 블레셋의 거인 장수는?

<지난호 정답>

								사	랑	의	매
								다		사	
							골	리	앗		
							짜				
				양	치	기					
		얼	룩	말							
	모										
	나										
	리										
사	자										
무											
엘	리	베	이	터							

감사릴레이

박선진 집사

몇 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힘겨워졌고 결국엔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원장 선생님께서 파트 타임으로 계속 일해 주기를 원하셨고 저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니 마음도 몸도 편해졌습니다.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수요일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수요일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몸을 강건케 하시며 무엇보다 영적 생활을 더욱 확대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김정임 집사

유머

청혼방식

가수, 탤런트, 정치인에게 각각 청혼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물었다. 먼저 가수가 대답했다.

“아내에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며 청혼했습니다.”

무슨 노래였나요?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탤런트

“아내에게 로맨틱한 대사를 읊어 주며 청혼을 했습니다.”

무슨 대사였나요?

“그대는 나의 운명이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정치인

“아내에게 장밋빛 공약을 하며 청혼했습니다.”

무슨 공약이었나요?

“글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단



뜻 : 주는 자

다윗 왕 때의 선지자.

나단은 "양심" 혹은 "주는 자"라는 뜻이다.

나단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다.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국권을 강력하게 다진 뒤에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으므로 이를 심히 송구하게 생각하였다.

이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건축보다 나라의 번영을 허락하셨고 성전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건축될 것을 예언하였다. 이는 다윗이 그 손으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대상 22:8)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다. 그 예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또한 나단 선지자의 선지사역 중 유명한 사건은 다윗왕이 밋세바를 범하여 범죄했을 때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한 일이었다.

한 부락에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양 한마리를 딸같이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비유로서 다윗의 범죄를 통렬히 지적하며 권고한 내용으로 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 나단 선지자는 자기 사명에 충성된 자였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의 분위기에 눌려 참말을 못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많은가? 사명에 충실하자.

▷교훈과 적용◁

첫째, 나단과 같이 시대적인 예언자가 필요한 때이다.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나단이 다윗왕을 회개시킨 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 관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일이었다.

점심 데이트

9분짜리 단편 흑백영화 '런치 데이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짧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잠시 흐뭇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올립니다.



백인 귀부인이 붐비는 기차역에서 흑인과 부딪혀 쇼핑백을 떨어뜨린다.

쏟아져나온 물건을 주워 담느라 기차를 놓치고, 역내 음식점에 가서 샐러드 한 접시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은 그녀는 포크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알고 포크를 가지러 간다.

그 사이, 걸인처럼 보이는 흑인이 자신의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만다. 귀부인은 화가 났지만 포크를 집어 들고 샐러드를 같이 먹는다. 귀부인 한 번, 흑인 한 번 교대로 음식을 먹는다. 다 먹은 후, 흑인이 커피를 두 잔 가져와 하나를 귀부인에게 건넸고, 커피를 마신 귀부인은 기차를 타러 다시 나간다. 가던 중 순간 쇼핑백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 급히 음식점으로 뛰어오지만, 흑인도 쇼핑백도 보이지 않는다.

당황한 귀부인이 음식점 여기저기를 훑어보는데, 아까 그 옆 테이블에 손도 대지 않은 샐러드 접시가 놓여있고 의자 위에 쇼핑백도 있었다.

사실은 자리를 잘못 찾은 귀부인이 흑인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흑인은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음식을 귀부인과 나누어 먹었고 커피까지 대접했던 것이다.

이 흑인은 참으로 넉넉한 마음을 지닌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유와 넉넉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조급하고, 자신만 알고, 관대하기는커녕,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리를 잘못 찾은 자신이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남만 탓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어이없는 잘못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지나갔을까요? 이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당황케 했고 나의 품격을 스스로 낮췄는지 부끄럽게 되돌아봅니다.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날씨에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하고 복된 오늘 엮어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동글>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 체로키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독특한 훈련을 했습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과 정찰을 했고, 물고기를 잡는 등의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이 통과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과 부족을 떠나 본 적 없는 소년은 처음으로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언제나 가족과 부족이 그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그날 밤은 철저히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이날 밤 소년은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눈가리개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수풀 사이로, 땅 위로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소년이 앉아있는 그루터기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렇게 그 밤을 홀로 이겨내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기에 소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공포의 밤은 어느덧 지나가고 어두컴컴한 숲들 사이로 새벽 미명이 스며듭니다. 마침내 눈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소년의 눈엔 주변에 꽃들과 나무, 작은 숲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소년이 눈에 어렴풋이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내내 아들 옆의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뜯어보아 지켜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여차하면 부족해 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조금 더 배려 있는 아이, 조금 더 강인한 아이, 조금 더 넓은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 가끔은 모진 말과 사랑의 벌로 엄한 훈육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 덕분에 오늘의 **‘씩 관찰은 당신’**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시사용어 Briefing

테스트 베드(Test Bed)

테스트 베드란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이 소비되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결과 예측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기술의 적합성을 테스트 해보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장비들을 구비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환경을 말한다. 테스트 베드는 시험무대라는 뜻으로 주로 광통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개발된 소재를 사업화하기 이전 양산화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위한 테스트 베드, 소재부품 전문 기업을 위한 테스트 베드, 디지털시네마를 위한 테스트 베드, 기상청의 레이더 테스트 베드 등이 있다.

탄소 중립(탄소 제로, 炭素中立, carbon-neutral)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한다.

이해충돌 방지법[利害衝突防止法]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ISA(Individual ISynthesis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증권,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통장

다크코인(Dark Coin)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암호화폐로, 혁신적이라는 평가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기존의 암호화폐는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개하지만 다크 코인은 거래 내역 정보를 드러내지 않아 다크 웹을 통해 자금세탁, 마약 거래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구동토층

영구동토층은 지중온도가 일 년 내내 물의 어는점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층, 지질학적으로는 2년 이상 토양온도가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주로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토양의 연평균 온도가 결빙점 이하라 하더라도 표층에서 가까운 깊이에서는 여름철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얼음이 녹게되고 습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영구동토층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목과 풀, 이끼들이 대거 자라기도 하는데 이를 활성층이라고 한다.

가면증후군

가면 증후군은 지위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는 자격이 없는데 남을 속여서 지위에 올랐다고 느끼는 불안 심리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가면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를 사람에게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받을 수 있는 감정의 충격을 피하려는 방어본능이라고 설명한다. 일에 실패했을 때 ‘나는 원래 이 정도 능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건강 상식 일사병과 열사병

일사병은 햇빛의 뜨거운 열에 의한 신체적 증상을 의미하고 열사병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뜨거운 햇빛뿐만 아니라 그 외의 뜨거운 열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에서 증상이 심각해지면 열사병으로 발전됩니다.



질병	일사병	열사병
일반적증상	두통, 어지러움, 구토	초기 증상은 일사병과 비슷
호흡	빠르고 얇음	깊은호흡 후 얇은호흡
맥박	약함	약함
의식	정상 혹은 실신	의식혼란 혹은 혼수상태
피부 및 땀분비	과다분비	건조, 홍조
체온	정상 혹은 조금 높음 (37 - 40도)	10분내에 40도 이상 오름
응급처치	- 서늘한 곳에 옮겨 쉬게 한다 - 소금물이나 이온음료등 수분섭취 - 30분 경과시 증상호전 없으면 병원으로 이송	- 즉시 119에 신고 - 젖은 물수건, 에어컨,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빠른시간내에 체온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답지 못해도 나 답아 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답지 못해도 나 답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요한남선교회, 7월 11일 오후6시
주교교사, 7월 18일 오후6시
2. 여름성경학교 / 7월 25일, 8월 1일, 8일

◎ 공지사항

1. 7월 생활실천표어 / 네 소원이 무엇이냐?
2. 7월 신앙서적 / 죽을 만큼 순종하라 ‘앤드류 머레이’ 저
3. 코로나19 / 개인생활방역 철저하게 - 마스크착용, 백신접종

◎ 이달의 교우소식

1. 지방공무원행정직 1차합격 / 전수진청년
2. 해병대훈련수료식 / 한예성청년, 7월 8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